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시장 동향



미 국

● IBM,

통신위성사업에서 철수

미국 IBM은 장거리 전화회사인 MCI사에 대한 출자를 회수한 데 이어 통신 위성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100%출자 자회사인 세틀라이트 트랜스폰더 리서치 (STR)사의 전체 주식을 휴스커뮤니케이션사에 매각한다.

따라서 휴스측은 STR이 운영하고 있는 3개의 통신위성 트랜스폰더(전파중계기)를 인수하게 되는데,STR은 현재 SBS 4 및 5호를 리스하고 있으며 내년 6월에는 3번째의 위성 SBS 6호를 추가 발사할 계획이었다.

이 통신위성은 모두 휴스사 제작품으로서 하나의 위성은 16 채널의 KU 밴드를 가지고 있다.

당초 IBM은 작년 9월, SBS4 및 5호 트랜스폰더 리스판매에 관하여 휴스측과 제휴한바 있었으나 직접 사업 간여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번의 매각 결정으로 SBS 6호 발사를 휴스측이 책임을 떠맡고, 향후 IBM의社内용 트랜스폰더를 지원제공키로 하였다.

IBM은 컴퓨터로부터 통신서비

스 분야 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의 STR 매각으로 거의 모든 통신관련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하게 되었으며, AT & T가 통신에서 컴퓨터로 사업확대에 주력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 고속 PC 발매 시작

미국의 메이커들은 상품화가 주목되어 오던 고속 PC를 발매하기 시작했다.

이 고속 PC는 인텔사의 80386 시리즈중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33MHz의 CPU를 사용하고 있는데 IBM호환기 메이커의 대표격인 2개사가 발매하고 있으며 PC내의 데이터 전송로인 고속전송 회로는 반 IBM인 EISA(Extended 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규격을 채용하고 있다.

고속 PC를 둘러싼 IBM과 반IBM 진영의 싸움은 EISA 규격의 상품화로 본격화 됐다.

발매 상품은 컴팩컴퓨터사의 「DESKPRO 386/33」과 AST리서치사의 「PREMIUM 386/33」이며 현재의 PC보다 연산속도가 35~50% 빨라 워크스테이션과 미니컴 레벨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IBM은 고속 PC에서 호환기 메이커의 잠식을 우려하고 있는 IBM은 AT호환기가 아닌 「PS/2」 PC를 판매하고 있으며 고속 전송회로는 마이크로 채널로 「PC

/AT」의 주변기기는 사용치 않고 있다.

유수의 호환기 메이커들은 「PC/AT」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고속 PC용 전송회로를 제작하고자 EISA라는 조직을 만들고 컴팩, AST외에 일본전기, 세이코엡슨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편 IBM은 이탈리아의 올리베티, 대만의 베이사과 마이크로 채널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 메이커와도 교섭하고 있으며 EISA진영에 대항하고 있다.

고객은 PC구매시 PC/AT의 주변기기 및 소프트 또는 IBM이 금후 제작할 새로운 것을 선정하게 된다.

EISA 진영은 33MHz의 고속 PC를 IBM보다 먼저 내 발표하므로써 고객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IBM은 80386 대신 최신의 CPU 80486 (25MHz)을 사용한 CPU카드를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CPU카드를 PC에 교환해 넣음으로서 즉시 PC의 능력을 높여 AST나 컴팩 제품보다 2배의 처리 속도를 갖게 된다.

또한 EISA진영의 AST사는 80486의 CPU카드를 IBM보다 2개월 먼저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일본전기, 세이코엡슨도 고속 PC를 해외시장에 투입할 것이 확실하므로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 공중팩시밀리 이용 급증

미국에서는 근간 팩시밀리를 사용한 뉴서비스가 번성하고 있다. 호텔, 역, 슈퍼마켓등에도 공중팩스가 등장하므로써 경쟁사업인 택배운송업자가 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팩스 회사가 이미 15개사 이상이며, 공중용 팩스 스테이션도 9,000개소에 달하고 있다.

● 텔리네트사, 일본서 VAN 사업 본격화

세계 최대의 VAN 회사인 미국 텔리네트 커뮤니케이션은 일본에서의 VAN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의 가네마쓰 고쇼와 합병에 의한 VAN 회사인 일본 텔리네트를 100% 자회사로 변경하고 증자시키는 한편 국제 VAN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특별 제 2종 전기통신사업 등록을 일본 우정성에 신청, 인가를 받았다.

일본

● 켄우드사, 상대방 식별기능 전화기 판매

켄우드사는 7월 20일부터 신형 표준전화기 「IS-E7」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전화기는 특정 상대방이외로부터 걸려온 전화인 경우 호출음을 울리지 않는 「시크릿 콜기

능」을 가지고 있으며 호출음이 울리는 회수에 따라 상대방을 판단하게 된다.

즉 호출음의 회수를 6회로 설정해 놓으면 6회 울린후 전화가 끊어지고 다시 전화를 걸면 전화가 연결되는 기능이다. 또한 수화기를 들면 다이얼 버튼이 녹색으로 점등하며, 호출음도 보통의 벨음과 보류음의 멜로디를 선택할 수가 있다. 가격은 19,000 엔.

한편 히타찌사는 음성합성 메시지에 의한 응답기능을 가지며 상대방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패전전화기 「PET-M10」을 8월 하순부터 판매한다. 이 전화기는 전화가 걸려올때 「스피커 수화버튼」을 누르면 「예, 누구신지요」라는 합성음으로 응답하고 이에 대답하는 상대방 음성을 듣고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재중일때는 「부재중입니다」라는 메시지도 자동적으로 응답할 수 있고 「단축다이얼」「재다이얼」기능도 구비되어 있다. 가격은 18,800 엔.

● 로터스, 영어판 표계산 소프트웨어 판매.....

소프트웨어 회사인 로터스사는 표계산소프트웨어 「로터스1-2-3」의 최신 영어판 OS인 OS/2 「시리스3 (R3)」을 7월10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대응기종은 IBM PC AT, Ps/2 및 이의 호환기이며 가격은 9,800 엔이다.

R3은 로터스디벨로프먼트사에 의해 미국에서 6월 20일부터 판

매되고 있으며 집계표와 그래프를 화면상에 3 장까지 동시 표시하고 최대 256장의 집계표를 필요 사항에 따라 중첩하여 동시처리가 가능하다.

● NTT, 91년부터 4자리 국번 실시

일본전신전화 (NTT)는 1993년경으로 예정하고 있던 동경의 시내전화 국번을 일제히 네자리수로 변경하는 시기를 1991년 1월1일 오전 2 시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세자리 국번 모두는 국번 앞에 3을 추가하게 되는데, 작년 2월부터 실시한 네자리 국번 (첫자리수 5)은 변경없이 사용가능하다.

실시시기를 정월초하루로 결정한 이유는 신년 켈린더 인쇄관계이며, 오전 2 시로 한것은 0 시부터 2 시사이의 신년인사 전화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네자리로의 변경을 앞당긴 이유는 팩시밀리, PC통신등 음성이외의 미디어에도 가입전화기 이용되기 때문에 전화의 신설수요가 증가하고, 금후 ISDN의 보급에 따른 번호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경 23구의 가입전화 계약수는 작년말 622만으로 최근에 연간 30만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네자리수로 변경함에 따른 비용은 전국 교환기의 번호 테이블 변경비, 변경 음성안내장치비, 전화국 단축다이얼 기능 테이블 변경비등에 30억엔, 그리고 번호변경에 따른 신문, 잡지, TV를 통한

광고선전비 20억엔을 예상하고 있다.

● KDD, 日-英간 디지털 전용 회선 디어스 실시

일본의 국제전신전화(KDD)는 해저 광케이블을 이용한 일본-영국간의 고속디지털 전용회선 서비스 「THE LONDON CONNECTION」을 지난 8월부터 취급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금년에 개통된 태

평양 광케이블인 TPC-3/HAW-4와 미국의 대륙횡단케이블 및 대서양광케이블인 TAT-8을 접속하여 56~256 kbps의 고속 디지털 회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 구간이 케이블이기 때문에 위성 에 비하여 전송지연이 없는 전송 로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전송로와 위성경유 전용회선 전송로등 회선의 다전송로 구성 도 가능하게 되며 요금은 위성 경유매와 동일하다.

종 별 \ 요금(월간)	일 본 측	영 국 측
56/64 kbps	142만엔	4,583 파운드
128 kbps	222만엔	8,083 파운드
256 kbps	350만엔	14,667 파운드



동남아

● 지멘스, 인도에 S/W 센터 개설

서독의 지멘스사는 내년부터 부메이에 있는 현지법인 지멘스 리미티드를 통해 뉴델리에 소프트웨어 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서독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확보가 곤란하여 인도에 진출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50명 정도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 회사는 인도의 공과계 대학등과 소프트웨어 공동개발도 계획하고 있고 연구개발비를 2억 4천만 달러로

책정해 놓고 있다.

● 대만-일본간 광케이블 부설 계획

대만의 국제전신개발(ITDC)는 일본의 국제전신전화(KDD)와 미국전신전화회사(AT&T)와 공동으로 대만과 일본간에 해저 광케이블 부설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케이블이 1992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용량 케이블 부설에 착수하려는 것으로 1993년중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대만-오끼나와와간 케이블의 통신용량은 480회선으로 이미 300회선이상 사용하고 있다.

새로 부설할 케이블 용량은 전 회선 환산 7천 5백 6십 회선이

며 총부설 비용은 약 1억 달러로 15개국 24개 사업자가 투자참가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봄까지는 부설지점, 부설일정 등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유럽

● 광대역 ISDN의 ATM, 셀크기 합의

지난 6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CCITT SG XVIII 제1회 전체회의에서 광대역 ISDN의 ATM(비동기전송 모드) 방식에 대해 셀의 크기를 48(정보필드) + 5(헤더) 바이트의 제 53바이트로 합의 하였다.

ATM 셀의 크기는 미국안(64 + 5바이트), 유럽안(32 + 4바이트), 일본안(66 + 6바이트)의 세 가지 안중에서 금년초 ISDN 전문가 회의에서 미국안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음성과 이동통신을 위해 ATM 셀 길이를 짧게 해야 한다는 이론이 제기되어 유럽과 미국이 타협하여 이들안의 중간을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1990년 1월 ISDN전문가회의에서 상세사항을 합의하여 권고 초안을 작성한 다음 권고 화할 계획이다.

● ISDN용 G3 FAX 표준화 추진

전세계적으로 500만대 이상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는 G3 팩시밀리에 대해, CCITT가 기능을고도화 하려는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능 고도화를 위한 표준화 내용은 첫째 고속화, 둘째 고능률 2차원 부호화 방식, 셋째 고해상도, 넷째 ISDN단말화 등이다.

고속화는 현재 9600 bps에 대해, V.33 모델으로 14.4 kbps로 올리는 것이다.

또한 에러정정 (ECM) 기능을 추가하고 G 4 팩시밀리와 같이 전 라인을 2차원으로 부호화하는 MMR 방식을 적용한다.

수퍼 파인 모드등의 명칭으로서 구비되어 있는 고해상도에 대해서도 표준기능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영국은 G3 팩시밀리를 ISDN에 수용하여 64 kbps로 전송하는 「G3 bis」를 제안하고 있어 논의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이에 동조하고 있고 프랑스, 서독, 일본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금후 G 4 팩시밀리와의 구별명확화등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 프랑스 텔리컴, 일본에 자회사 설립

프랑스 우정성 전기통신총국(프랑스 텔리컴)은 일본의 전기통신 시장이 확대되자 최근 자회사로 프랑스 텔리컴 저팬을 일본에 설립, 서비스 부문에서의 일본 진출을 본격화 한다.

이 회사는 일본의 국제전신전화

(주)와 제휴하여 프랑스-일본간 팩시밀리 전송서비스와 일본내의 비디오텍스 서비스등, 양국간의 TV회의 서비스에도 참여한다.

● 프랑스, 직접위성방송 개시

프랑스 범유럽 공공문화국은 작년 10월 발사에 성공한 통신위성 「TDF-1」을 이용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직접위성방송 (DBS)을 개시하였다.

개인용 소형 패러볼러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위성방송은 일본의 NHK에 이어 유럽에서는 처음인데 순조로운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 이탈리아 STET, 금융 VAN에 본격 참여

이탈리아 국영통신업 사업회사인 STET는 미국 제네럴일렉트릭 (GE)의 유럽 VAN 회사인 유럽 GEIS가 발행한 주식의 40%를 취득하고 금융 VAN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STET는 미국 AT&T와 국제통신사업에 관한 제휴를 개시한바 있는데, 이번 GE사에 출자하는 것은 영국, 서독, 프랑스의 통신사업회사에 대항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 에릭슨, 헝가리에 교환기 기술 합병

스웨덴의 통신기 제조 회사인 에릭슨은 헝가리의 유력한 일렉트로닉스 메이커와 디지털 교환기의 합병생산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를 하였다.

동구권에서 디지털 교환기의 합병이 실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공산권수출 통제위원회 (COCOM)의 인가를 받아 기술을 제공하여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에릭슨은 이번 합병으로 이 분야에서의 동서간 합병 제1호를 기록했다.

● 아리안 스페이스, 방송·과학 위성 발사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사는 한국 시간으로 8월 9일 오전 7시 47분에 서독의 방성위성 「TVSAT-2」와, 유럽우주기구 (ESA)의 과학위성 「히펠코스」를 남미 프랑스령기아나의 쿨 우주센터에서 아리안-4형 로켓에 의해 발사하였다.

「TVSAT-2」는 프랑스와 서독의 합자회사인 유로새틀라이트사가 제작한 1톤급 3축 제어 위성으로 지상36,000 km, 시경19도 상공에 정지되었다. 다섯개의 트랜스폰더를 탑재한 이 위성은 1987년에 발사한 같은 형의 「TVSAT-1」이 태양전지 패널이 열리지 않아 작동에 실패한 후 2년만에 발사된 것이다.

한편 「히펠코스」위성은 프랑스의 마드라사가 제작한 전문관측 위성으로서 별들의 위치, 이동등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아리안스페이스사는 금년내에 두번 더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인데오는 10월에 인텔세트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의 인텔세트-VI를 아리안-4형 로켓으로 쏘아 올리게 된다.